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 7. 25.(금)

정부, 한미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며 관세 협상 돌파구 마련에 총력

- 김정관 장관-덕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여한구 본부장-그리어 USTR 대표 면담 -
- 김 장관, 현지에서 25일 러트닉 상무장관과 추가 협상 예정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정부 주요 인사와 고위급 협의를 연이어 진행하고 한·미 관세 협상 진전 활동을 집중 전개하였다.

김 장관은 7월 24일(목)(현지시간) 오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면담하고, LNG, 발전설비, 희귀광물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한국과 협력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고 우리 측도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 본부장도 7월 25일(금) 오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하고,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집중 진행하였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측 관세조치 관련 우호적 고려를 재차 요구하였다.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USTR 실무진과 전날 별도 협의를 갖고, 핵심 쟁점별 세부 협상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를 화상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막바지 협상 타결 방안 도출을 위해 현지에 머물며 러트닉 상무장관과 25일(금) 오후 추가 협상을 가질 예정이며, 8월 1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노은정	(044-203-5628)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이동욱	(044-203-565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